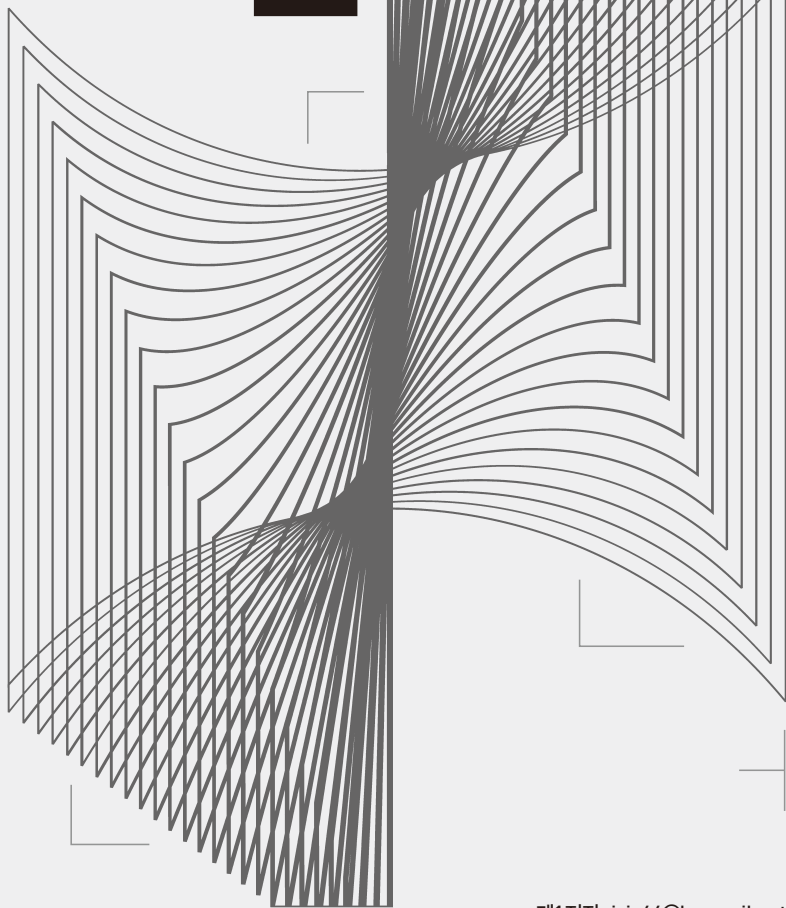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8호

(2026/봄)



제1저자. iyjs64@hanmail.net

생사관 인식 군집유형과 삶과 죽음의 질 차이연구

양준석(한림대학교 · 생사학연구소 · 연구원)

<https://doi.org/10.21738/JHS.2026.4.58.71>

I. 서론

■ 우리 사회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무거운 질문에 직면해 있다. 죽음을 두렵고 피해야 할 금기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삶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생각하느냐는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의 존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생사관에 대한 인식은 죽음에 대한 건강한 수용으로 역설적으로 삶의 질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든다(신은보, 2018)고 한다. 죽음의 유한성을 인정하면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된다(김선희, 2011). 하지만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의 현실을 피하려 할수록 죽음의 막연한 공포와 불안은 커지는 역설에 사로잡힌다(황보경·심에린, 2022)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사관에 대한 인식은 삶에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됨으로서 물질적 성공이나 타인의 시선 같은 외적 가치보다 사랑, 용서, 화해 같은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심리적 안정감과 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곽혜원, 2021)

또한 생사관에 대한 인식은 죽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202251A5B5A16053182)

의학의 발달로 생물학적 수명은 길어졌지만, 이것이 곧 평안한 죽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박충구, 2015). 많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삶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삶의 존엄성처럼 죽음에도 존엄성을 지키길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사관에 대한 인식은 마지막 순간의 존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김명숙, 2011). 실제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으로 인해 당하는 죽음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이은영, 2018).

또한 생사관에 대한 인식은 죽음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과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들이 대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심리적 갈등이나 도덕적 딜레마를 막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준다(김명숙, 2011).

이처럼 초고령사회에서 생사관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며 죽음부정과 연명 치료등에만 매달리는 죽음부정 문화에 중요한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사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잘 준비하고 남은 삶을 가장 나답고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자기결정권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김은철·김태일, 2013).

지난 우리사회가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웰빙(well-being)과 같은 건강과 안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Haybron, 2000). 삶의 질은 좋은 삶, 의미있는 삶, 행복한 삶 등 다양하게 불리우지만 객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조건,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를 말하며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한다. 삶의 질은 경제적 수입, 건강, 교육, 주거 등 환경적 요인들과 개인들의 심리 내적 요인으로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요인 등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성장과정이나 건강에 초점을 둔 양적 연구에서 최근에는 질적인 측면과 생태적 환경을 포괄하는 연구로 진행되

고 있다(신은보, 2018).

한편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삶의 질과 함께 죽음의 질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삶의 마지막 단계로서 죽음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늘고 있다(하정임·양준석, 2025). 죽음의 질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의 환경적 변화와 죽음의 일상화와 보편화된 경험을 통해 삶에만 관심을 가졌던 인식의 전환으로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선행연구(Stewart et al., 1999)에서 죽음의 질은 주로 자율성과 존엄성, 고통 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실제 서양문화권에서는 죽음과 관련해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강조하지만, 동양문화권에서는 가족 및 의료진과의 관계 유지와 가족에게 부담주지 않는 것을 더욱 중요시한다(Krikorian et al., 2020). 이러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죽음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개입은 서구사회의 양상과 구별된다(임연옥, 2022).

이처럼 생사관에 대한 인식은 삶과 죽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AI로 대변되는 요즘에 생사관에 대한 생각과 태도도 기술 발달과 사회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양준석, 2023). 특히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논의가 새로운 논의로 떠오르고 있다(조태구, 2022). 이러한 논의를 위한 실행연구로서 생사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생사관에 대한 인식은 우리사회의 죽음문화 관련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실행적인 작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생사관에 대한 인식연구는 주요인물 중심의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 요인연구와 유형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생사관 요인연구는 소수의 표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고, 유형연구는 실증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다. 특히 생사관의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이나 죽음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유형적 특성을 연구하는 생사관 유형 연구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실제 생사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모듈식의 이론과 치료적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생사관 인식에 대한 유형 연구와 삶과 죽음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생사관 인식에 대한 유형과 삶과 죽음의 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함이다. 또한 개인의 생사관 인식에 대한 유형이 삶과 죽음의 질 지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알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이미 개발된 생사관 관련 척도를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생사관 인식에 따른 유형과 삶과 죽음의 질 관련 척도의 차이 분석을 통해 생사관 인식 유형과 삶과 죽음의 질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사관 인식 유형

생사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로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생사관은 ‘죽음관’, ‘사생관’, ‘죽음의 태도’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신은보, 2018)되고 있으며 인문학에서는 주요 인물에 대한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에서는 생사관의 구성 요인과 척도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양준석, 2023).

생사관 관련 변인연구는 크게 요인 연구와 유형 연구로 나눌 수 있다(양준석, 2024). 생사관 관련 요인 연구는 다수의 관찰된 변수들간 상관관계를 통해 생사관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요인을 밝히는 게 주된 목적이다(최창호·유연우, 2017). 생사관 관련 유형연구는 연구 대상의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고유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본질적이고 상세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사관 관련 요인연구로 Spilka와 동료들(Spilka, Stout, Minton, & Sizemore, 1977)은 ‘자연스러운 종말’, ‘정복(淨福)한 내세’, ‘용기’, ‘고통과 고독’, ‘무관심’, ‘미지’, ‘가족과의 이별’, ‘좌절’의 8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이누미야 요시유키(2002)는 ‘내세관’, ‘죽음의미’,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생명존중의지’의 5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양준석(2024)은 ‘죽음불안’, ‘내세관’, ‘죽음준비도’,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 ‘생명존중의지’의 6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생사관 관련 유형연구로 Thalbourne(1996)은 ‘소멸론’, ‘윤회론’, ‘부활론’, ‘절충주의’, ‘내세 신앙’, ‘불가지론’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이누미야 요시유키(2002)는 ‘소멸형’, ‘환생형’, ‘천국지옥형’, ‘불분명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김명숙(2011)은 ‘범신론형’, ‘종교형’, ‘과학형’의 3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신은보(2018)는 ‘순환형’, ‘단절형’, ‘과업형’의 3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이렇듯 생사관 관련 요인 연구나 유형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과 대상 표집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제각기 요인들과 유형 연구로 정리되고 있다(양준석, 2024).

물론 생사관은 한 사회 내에서도 개인적 성격, 지역이나 종교 등이 누가적으로(cumulative) 사회문화에 중첩되어 있기에(나희라, 2010) 단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생사관은 삶의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을 맞

이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유가족의 애도과정에서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따라서 생사관에 대한 인식을 유형으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변화를 정리한다는 점과 더불어 죽음 관련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모듈식으로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삶의 질

삶의 질(박정숙 외, 2007)은 물질적 부나 삶의 양적 가치와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크게 객관적인 측정을 중시하는 입장과 주관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신은보, 2018). 객관적 측정의 주요 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며, 주관적 만족의 주요 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의 측정값이다(Veenhoven, 2002).

객관적인 지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삶의 질은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건강요인으로 구체화 한다(신은보, 2018). 실제 사회경제적 요인을 직업 및 소득에 따른 경제수준,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 교육수준 등의 인적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는 일상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승배, 2009). 가족, 친구, 이웃, 친척 등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요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적응에 중요하다(Fiori et al., 2006). 신체적 건강은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서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인 적응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ctor et al., 2005).

이에 비해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하며, 주관적 웰빙의 지표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반영한다(김형일·유승호, 2016). 삶의 만족도 혹은 안녕감은 개인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행복감과 관계되며, 자신이 전반적으로 가치 있다는 평가하는 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전반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Rosenberg, 1965). 특히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이는 삶의 적응 및 부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Pyszczynski & Schimmelm, 2004).

최근에는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의미와 목적, 안녕 등 주관적인 인식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신은보, 20186). 이러한 점에서 삶의 질은 현재의 삶의 정도와 지난 삶에 대한 평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죽음의 질

죽음의 질(정경희 외, 2018)은 죽음을 맞는 과정과 경험의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죽음의 질은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사회적, 영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생애 말기 이르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하정임·양준석, 2025). 실제 죽음의 질은 좁은 의미로 임종기에 대한 질적 평가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질병이 발생한 생애말기부터 임종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포함한다(Patrick et al., 2001).

선행연구에서 죽음의 질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체감에 따라 상속, 영정사진, 수의준비 등 물질적 준비를 강조하거나(김미순 외, 2011), 경제 상태, 죽음 관련 사전의사결정 등과 같은 주관적 판단을 중요한

요인(염은이, 2021; 정순돌 외, 2014)으로 고려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죽음 관련 의사결정은 가족의 의견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이선희·정경희, 2019) 연구도 있으나, 죽음준비는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정경희 외, 2018) 연구들도 있다.

죽음의 질 관련 개인적 차원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사결정, 죽음에 대한 태도, 삶의 의미, 자기존중 등 심리적 태도와 신체적 건강 등이 중요 요인이다(Emler, 2001). 사회적 차원은 가족의 지원 및 사회적 지지, 웰다잉 문화 등 사회적 관계 인식이 중요 요인이다(전영주, 2009). 환경적 차원은 생애말기 환자의 통증 조절과 완화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과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중요 요인이다(Bhadelia et al., 2022).

이처럼 죽음의 질은 다차원적이며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다. 환경적 차원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반영한다면 사회적 요인은 가족과 사회적 지지와 죽음문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반영한다. 이에 비해 개인적 차원은 의사결정의 역량과 성찰적이며 실천적 측면을 반영한다.

이처럼 죽음의 질은 단순히 의료시스템 내에서 개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죽음의 다차원적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을 연결하여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수집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생사관 유형과 죽음의 질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 인구분포를 고려해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자료수집은 확률적 층화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가 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대학교 생명윤리 위 IRB 받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HIRB-2024-085).

2. 측정도구

1) 생사관 관련 인식

이누미야 요시유키(2002)가 사생관 하위척도로 내세관 특성을 제시하였고, 김명숙(2011)은 생사관을 범신론적 생사관, 순환적 생사관, 단절형(과학적) 생사관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은보(2018)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설문문항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생사관 관련 인식 측정문항은 총 6개였다. 6개 문항은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된다’,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죽음을 피하고 싶다’이다. 이를 군집화하여 3개의 유형척도로 사용하였다.

2) 죽음의 질

죽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정임·양준석(2025)의 한국형 죽음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죽음의 질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 26 문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죽음의 질 하위요인에서 자기결정권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며, 심리적 안녕은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다는 것이며, 자립활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이 닥쳐도 평상시 활동을 잘 한다는 것을, 간병부담은 점수가 높을수록 간병부담에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질 척도의 Cronbach's α 는 .94였다.

3) 웰다잉

웰다잉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가혜(2023)이 개발한 한국형 웰다잉 척도를 사용하였다. 웰다잉 척도는 웰다잉을 죽음성찰, 죽음수용, 의미부여, 초월, 사전의사결정, 가족 간 가치공유 등 6가지 하위요인, 19문항이며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웰다잉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4)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혜, 신경림(2005)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삶의 질은 초기에는 건강등 생물학적 측면에서 정의되었는데 이후 심리적 기능과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질을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자기 효능감, 동반자적 삶, 관계 만족, 자기통제 등 4가지 하위요인, 19문항이며 5점 척

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 였다

3. 자료 분석방법

기술적 통계처리 분석을 위해 SPSS 26.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분석 도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Pearson 상관 계수를 산출하고, 각 척도의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생사관을 군집으로 유형화하기 위해 계층적 분석을 통해 덴드로그램을 산출하고 적절한 군집화 기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K평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를 실시하였다.

넷째, 유형화된 생사관에 따라 삶과 죽음의 질에 차이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참여한 연구참여자 1,82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24)

구분		빈도(%)
성별	남성	926(50.8%)
	여성	898(49.2%)
연령대	20대	297(16.3%)
	30대	330(18.1%)
	40대	381(20.9%)
	50대	432(23.7%)
	60대	384(21.0%)
혼인상태	미혼	652(35.8%)
	기혼	1,048(57.5%)
	별거/사별/이혼	124(6.7%)
종교유무	있음	818(44.8%)
	없음	1,006(55.2%)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275(15.1%)
	대학교 졸업	1,296(71.1%)
	대학원 입학 이상	253(13.8%)

2.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들에 대한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 값의 범위는 -0.41~0.06, 첨도 값의 범위는 -0.66~1.09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본 자료는 정규성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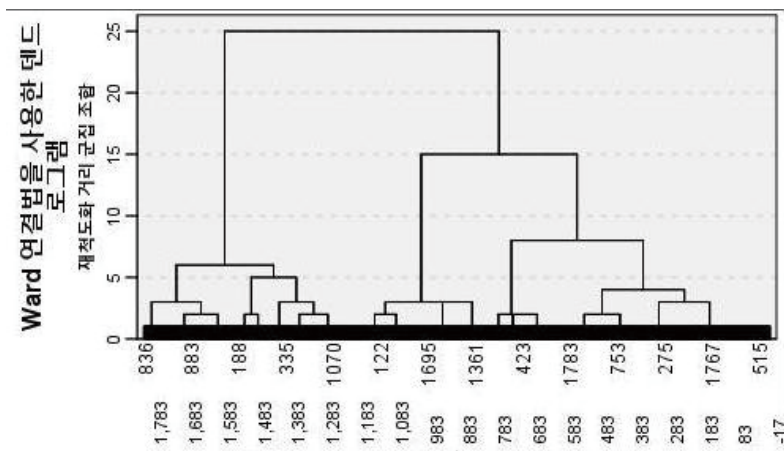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Kline, 2005).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생사관 유형 관련 요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1,824)

변인	1	2	3	4	5	6
1. 군집_1	1					
2. 군집_2	.269**	1				
3. 군집_3	-.012	-.151**	1			
4. 웰다잉	.160*	.472**	-.083**	1		
5. 죽음의 질	.192**	.555**	-.093**	.561**	1	
6. 삶의 질	.105**	.499**	-.100**	.568**	.599**	1
평균(M)	2.83	3.43	2.73	4.41	3.61	3.68
표준편차(SD)	1.06	.81	.66	.73	.48	.62
왜도(Skewness)	.06	-.36	.05	-.31	-.38	-.41
첨도(Kurtosis)	-.66	.21	.45	.55	1.09	.70

3. 생사관 인식 유형에 따른 군집분류

생사관 인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죽음불안, 내세관, 죽음태도, 삶의 의미의 점수를 표준점수(Z)로 변환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군집 수의 예비 추정을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로 생성된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군집 간 결합 거리의 급변 지점을 기준으로 3개의 군집으로 파악하였다(〈그림 1〉).



〈그림 1〉 생사관 인식 계층적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군집화를 위해 사전 군집 수를 3으로 지정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생사관 인식 유형의 Z점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생사관 인식 유형의 중심 Z점수

변인	군집1	군집2	군집3	F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죽음을 피하고 싶다.	.03	.26	-.41	65.15***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23	-.05	-.29	39.71***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91	.56	.64	1078.00***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86	.57	.53	832.89**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된다.	-.24	.81	-.76	608.29***

변인	군집1	군집2	군집3	F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32	.84	-.67	620.28***
N	718 (39.3%)	643 (35.4%)	463 (25.3%)	

생사관 인식 유형의 특징과 명칭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생사관 유형을 명명하였다.

생사관 인식 1집단은 죽음부정(.23)이 높고 삶의 목적(-.91)이 낮고 내세관(-.32)에 대한 믿음이 낮아 현대인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지향형의 특징과 부합한다. 생사관 인식 2집단은 죽음부정(-.05)이 낮으나 삶의 목적(.57)이 높고 내세관(.84)에 대한 믿음이 높아 내세지향형의 특징과 부합한다. 생사관 인식 3집단은 죽음부정(-.41)이 낮고 삶의 목적(.64)이 높고 내세관(-.76)에 대한 믿음이 낮아 의미추구형의 특징과 부합한다.

4. 생사관 인식 유형에 따른 삶과 죽음의 질 차이

생사관 인식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통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생사관 인식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통계의 차이

변인		N(%)	현실지향형 N(%)	내세지향형 N(%)	의미추구형 N(%)	χ^2
성별	남	926 (50.8)	356 (19.5)	325 (17.8)	245 (13.4)	1.27
	여	898 (49.2)	362 (19.8)	318 (17.4)	218 (12.0)	
연령	20대	297 (16.3)	126 (6.9)	93 (5.1)	78 (4.3)	16.71*
	30대	330 (18.1)	144 (7.9)	108 (5.9)	78 (4.3)	
	40대	381 (20.9)	159 (8.7)	141 (7.7)	81 (4.4)	
	50대	433 (23.7)	165 (9.0)	150 (8.2)	118 (6.5)	
	60대	383 (21.0)	124 (6.8)	151 (8.3)	108 (5.9)	
혼인 상태	미혼	653 (35.8)	312 (17.1)	199 (10.9)	142 (7.8)	31.31***
	기혼	1055 (57.8)	361 (19.8)	401 (22.0)	293 (16.1)	
	사별등	116 (6.4)	45 (2.5)	43 (2.4)	28 (1.5)	
종교	있음	818 (44.9)	250 (13.7)	419 (23.0)	149 (8.2)	170.82***
	없음	1006 (55.1)	468 (25.7)	224 (12.3)	314 (17.2)	
학력	고졸	276 (15.1)	142 (7.8)	73 (4.0)	61 (3.3)	36.24***
	대졸	1297 (71.1)	510 (28.0)	457 (25.1)	330 (18.1)	
	대학원	251 (13.8)	66 (3.6)	113 (6.2)	72 (3.9)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사관 유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종교유무, 학교에 따른 집단별로 집단화하였고, 카이제곱 검증 결과 성별만 빼고 모두 유의했다.

생사관 인식 유형에 따른 죽음의 질 관련 척도의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생사관 인식 유형은 웰다잉($F(2, 1821) = 139.055$, $p < .001$)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죽음의 질($F(2, 1821) = 225.567$, $p < .001$), 삶의 질($F(2, 1821) = 153.486$, $p < .001$).

<표 5> 생사관 인식 유형과 삶의 질 죽음의 질 분산분석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웰다잉	128.354	2	64.177	139.055***	.132
죽음의 질	84.298	2	42.149	225.567***	.199
삶의 질	102.618	2	51.309	153.486***	.144

생사관 인식 유형별 차이와 죽음의 질 및 관련 척도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생사관 인식 유형과 삶의 질 죽음의 질 사후검증

변인	1 현실지향형 M(SD)	2 내세지향형 M(SD)	3 의미추구형 M(SD)	F	Scheffe
웰다잉	4.08 (.69)	4.61 (.67)	4.63 (.67)	139.06***	1 < 2,3
죽음의 질	3.35 (.46)	3.80 (.40)	3.77 (.43)	225.57***	1 < 2,3
삶의 질	3.38 (.64)	3.86 (.52)	3.89 (.55)	153.49***	1 < 2,3

3가지 생사관 인식 유형 군집유형에 따라 죽음의 질에 유의한 차이검증 결과 현실지향형, 내세지향형, 의미추구형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현실지향형에 비해 내세지향형과 의미추구형 집단이 죽음의 질이 가장 높았다. 또한 생사관 인식 유형 군집유형에 따른 웰다잉도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 현실지향형에 비해 내세지향형과 의미추구형 집단이 웰다잉이 가장 높았다. 삶의 질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현실지향형에 비해 내세지향형과 의미추구형 집단이 삶의 만족도 가장 높았다.

V. 결론 및 논의

■ 본 연구는 생사관이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점을 토대로 생사관의 하위 특성에 기초하여 생사관 인식을 유형화 하였다. 또한 분류된 생사관 인식 유형들 간의 차이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았고, 생사관 인식 유형별로 삶과 죽음의 질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사관 인식유형을 군집분석한 결과 ‘현실지향형’, ‘내세지향형’, ‘의미추구형’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범신론형’, ‘순환형’, ‘과학형’으로 분류한 김명숙(2011)과 신은보(2018)의 ‘순환형’, ‘단절형’, ‘과업형’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현실지향형’은 죽음불안이 높고 삶의 목적과 의미지향이 낮고 내세관에 대한 믿음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내세지향형’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죽음불안이 낮으나 삶의 목적과 의미지향을 추구하는 삶과 죽음을 순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특징을 보였다. ‘의미추구형’

은 죽음불안이 낮고,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삶의 과업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사관 인식 유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종교, 학교에 따른 집단별로 그룹화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현실지향형은 39.3%, 내세지향형은 35.2%, 의미추구형 2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김명숙의 연구의 ‘범신론형’ 22%, ‘순환형’ 35%, ‘과학형’ 33%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순환형과 과학형의 순위가 바뀌었을 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과학형이나 단절형과 같이 죽음문화의 부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20대부터 50대까지는 현실지향형이 가장 많았지만 60대에서는 내세지향형이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에서 미혼은 현실지향형이 높았고 기혼은 내세지향형이 가장 높았다. 종교가 있는 그룹에서는 내세지향형이 가장 높았고 종교가 없는 그룹에서는 현실지향형, 의미추구형 순으로 높았다. 학력에서 고졸이하와 대졸은 현실지향형이 가장 높았지만 대학원졸업은 내세지향형과 의미추구형 순으로 높았다.

셋째, 생사관 인식 유형별 차이와 웰다잉과 삶과 죽음의 질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집단 특성에 따라 관련 변수들 차이가 있었다. 죽음의 질의 경우 내세추구형과 의미추구형이 현실지향형보다 높았다. 웰다잉과 삶의 만족도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내세추구형과 의미추구형이 현실지향형보다 높았다. 이는 죽음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웰다잉이나 죽음의 질이 낮다는(김정현·오혜인, 2020; 최봄이·박하영, 2024) 연구와 죽음의 질은 삶의 질과 맞닿아 있다는(Morgan & Gazarian, 202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생사관 인식 유형은 ‘현실지향형’,

‘내세지향형’, ‘의미추구형’ 순으로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삶의 질만큼 죽음의 질을 고려할 때 생사관에 대한 교육과 자기 정립이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물질적이며 현실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면서 죽음이나 고통, 불안과 같은 정신적 가치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생사관의 하위요인에 기초해 한국 성인들의 생사관 인식 유형을 밝힘으로써 생사관의 특성 이해를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양준석, 2024)에서는 생사관은 요인연구나 단순한 유형을 주장함으로써 생사관의 다차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각각의 하위요인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유형적 특성을 갖는 생사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생사관 인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사문제에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사관 인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고, 임상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임상 요소들이 명확한 용어와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는 ‘모듈(module)’ 형태로 개발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사문제를 다루는 교육현장에서 생사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생사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적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다사(多死)사회를 목도하는 현실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삶의 질만큼 죽음의 질을 고려할 때 관련 변수로 생사관 인식 유형이 타당한 개념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넷째, 생사관 인식 유형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임상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이미 다양성과 다층성의 가치관들이 충돌하면서도 이를 통합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변화된 시대와 사회에서 생사관의 연구와 삶과 죽음의 질 관련연구를 사회변화에 맞는 현대인의 생사관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사관 인식 측정도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은보(2018)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척도를 검토한 후 생사관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생사관은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생사관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타당하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에서 단순한 기호와는 다른 문제로 생사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에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생사관을 유형화하고 죽음의 질과 관련 변수를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어 유형적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적 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곽혜원, 「글로벌 팬데믹 시대 속에서 생사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제언」, 『문화와 융합』, 43/2(2021), 105~124쪽.
- 김가혜, 「웰다잉 측정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김명숙,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Ⅱ」, 『철학논총』, 64/2(2011), 43~69쪽.
- 김미순·하춘광·김효순, 「내세관과 죽음준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톨릭학』, 16/1(2011), 111~136쪽.
- 김미혜·신경림,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2005), 35~52쪽.
- 김선희, 「죽음과 의미상실에 대한 철학적 치유의 가능성」, 『철학연구』, 93(2011), 201~230쪽.
- 김은철·김태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연구』, 24/1(2013), 97~124쪽.
- 김정현·오혜인, 「초고령 노인의 죽음 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40/6(2020), 1475~1495쪽.
- 김형일·유승호, 「더 나은 삶 지수」에서의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9/1(2016), 65~90쪽.
- 나희라,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생사관」, 『선비문화』, 17(2010), 15~21쪽.
- 박정숙·박옥임·김진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2007), 59~70쪽.

- 박충구, 「삶의 마지막 단계: 좋은 죽음(Euthanasia)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연구」, 『현상과 인식』, 5(2015), 197~231쪽.
- 신승배,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학회논문집』(2009), 285~312쪽.
- 신은보, 「한국인의 삶의 질과 사생관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문화』, 21/3(2018), 225~274쪽.
- 양준석, 「생사관 관련 연구의 문헌고찰」, 『인문사회21』, 14/3(2023), 225~238쪽.
- _____, 「생사관 척도 개발과 타당성 검증」, 『인간연구』, 53(2024), 121~151쪽.
- 염은이, 「중년기 성인의 좋은 죽음 인식,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이 사전의사결정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2021), 676~685쪽.
- 이누미야 요사유키, 「사생관 척도 개발 및 그 하위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선희·정경희,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9/2(2019), 305~323쪽.
- 이은영, 「존엄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성찰: 연명의료결정법과 안락사, 존엄사를 중심으로」, 『생명윤리』, 8/2(2018), 109~137쪽.
- 임연옥,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질적 메타분석의 적용」, 『생사학연구』, 3(2022), 129~166쪽.
-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법학연구』, 33(2009), 455~476쪽.
- 정경희·김경래·서제희·유재언·이선희·김현정,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조태구, 「미끄러운 비탈길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조력존엄사」, 『인문학연구』, 53(2022), 151~178쪽.
- 최창호·유연우,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2017), 103쪽.
- 하정임·양준석, 「한국인의 죽음의 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생사학연구』, 6(2025), 151~189쪽.

- 황보경·심예린, 「중년 성인의 죽음불안과 죽음수용의 관계: 의미추구·의미발견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33/4(2022), 43~66쪽.
- Bhadelia, A., Oldfield, L. E., Cruz, J. L., Singh, R. & Finkelstein, E. A., Identifying Core Domains to Assess the Quality of Death: A Scoping Review,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63(4)(2022), pp.365~368.
- Emler, N., *Self-esteem: the costs and causes of low self-worth*. York Publishing Services, 2001.
- Fiori, K. L. Antonucci, T. C. & Cortina, K. S., Social Network Typologies and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B(1)(2006), pp.25~32.
- Haybron, D. M., Two Philosophical Problems in the study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2000), pp.207~225.
- Kline, T. J.,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2005.
- Krikorian, A., Maldonado, C. & Pastrana, T., Patient's Perspectives on the Notion of a Good Death: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59(1)(2020), pp.152~164.
- Morgan, J. & Gazarian, P., A good death: A synthesis review of concept analyses studies, *Collegian*, 30(2)(2023), pp.236~246.
- Patrick, D.L., Engelberg, R. A. & Curtis, J. R., Evaluating the Quality of Dying and Death,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22(3)(2001), pp.717~726.
- Pyszczynski, T., Greenberg, G., Solomon, S., Arndt, J. & Schimmel, J.,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2004), pp.435~468, .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Spilka, B., Stout, L., Minton, B. & Sizemore, D., Death and personal faith: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6(1977), pp.169~178.

- Stewart, A. L., Teno, J., Patrick, D. L. & Lynn, J.,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of Dying Persons in the Context of Health Care,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17(2)(1999), pp.93~108.
- Thalbourne, M. A., Belief in Life after Death: Psychological Origins and Influ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6)(1996), pp.1043~1045.
- Veenhoven, Runt.,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2002), pp.33~45.
- Victor, C. R., Scambler, S. J., Bowling, A. N. N. & Bond, J.,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Loneliness in Later Life: A Survey of Older People in Great Britain, *Ageing & Society*, 25(6)(2005), pp.357~375.



■ 본 연구는 생사관 인식유형과 삶과 죽음의 질 관련 변인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관련 변인들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생사관 인식 유형, 삶의 질, 죽음의 질 등 관련 변인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SPSS 26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변량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생사관 인식유형은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각 유형은 현실지향형, 내세지향형, 의미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생사관 인식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통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셋째, 생사관 인식유형과 삶과 죽음의 질 관련 변수들을 분산분석을 한후 사후검증을 하였다. 생사관 인식유형과 삶과 죽음의 질 관련 변인은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관련 변인 중 삶과 죽음의 질과 관련 변인들에 가장 유의한 유형은 내세지향형과 의미추구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교육이나 죽음의 현장에서 생사관 정립을 위한 노력과 의미추구 관련 개입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생사관 인식유형, 삶의 질, 죽음의 질, 웰다잉, 군집분석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Life and Death Quality Between Cluster Types of Life and Death Perceptions

Yang, Jun Seok

(Hallym University of Korea · Institute of Life and Death Studies · Researcher)

■ This study categorizes and analyzes related variables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types of views on life and death and the quality of life and death. To this end, data on variables such as views on life and death,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death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of adults. Descriptive statistics, varianc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6.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ypes of views on life and death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reality-oriented, post-oriented, and meaning-seeking. Second, analysis of differences in views on life and death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reveal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Third, variance analysis and post hoc tests of variables related to views on life and death also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fterlife-oriented type and

the meaning-seeking type showed the strongest associations with the quality of life and death.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strengthen interventions that support the pursuit of meaning and to develop educational efforts aimed at establishing coherent views on life and death within death education and related fields.

Keywords: the view of life and death, quality of life, quality of death, well-dying, cluster analysis

- ◎ 투고 접수 2026. 03. 03.
- ◎ 심사 완료 2026. 04. 22.
- ◎ 게재 결정 2026. 04. 22.